



병풍도

바다가 대한 성벽



파도가 만든
바위 절벽이 성벽이나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보여 병풍도라
불린다.

서해 실크로드
한가운데 위치해
믿음직한 이정표가
된 병풍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
병풍도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인 '병풍도'를 선정했다.

* 보전 가치가 높아 건축·인공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동·식물의 포획·채취, 취사·야영 등 일부 활동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인도서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약 36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병풍도의 면적은 약 9,620㎡이다. 섬 대부분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파도가 깎아 만든 수직의 바위 절벽이 마치 성벽이나 병풍을 둘러친 듯한 장관을 연출해 '병풍도(屏風島)'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과거 태안 신진도항에서 가의도를 거쳐 격렬비열도로 향하는 바닷길은 주민들 사이에서 '서해의 실크로드'라 불릴 만큼 중요한 경로였다. 그 가운데 위치한 병풍도는 항해하는 이들에게 믿음직한 이정표가 되었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피해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가 되기도 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덕분에 병풍도의 자연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섬 상부엔 보리밥나무, 참억새, 원추리,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다채로운 식물군락이 감싸고 있으며, 특히 겨울이면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이 섬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우거진 숲은 천연기념물인 매와 갯이갈매기 등 희귀 바닷새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병풍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태안군청 오감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